

# 지속가능발전이란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WCED의 정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WCED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발전의 1차적 목적은 인간의 욕구충족이다. 인간욕구는 음식, 에너지, 주택, 물 공급, 위생과 건강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 자체이기에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인간욕구는 시간적으로는 세대를 초월하여, 공간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충족된다. 생산활동은 자연자원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WCED, 1987: 43).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의 정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2조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2조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지속가능발전”은 아래와 같이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쓰야 할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그들의 여건과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즉,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투자, 인간 지향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사회구조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욕구와 소망을 충족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변화과정입니다. 이는 인구의 증가와 성장이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조화를 이룰 때 발전이 추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우화를 읽어 봅시다.

- 두 청년이 힘을 모아 함께 술장사로 돈을 벌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둘이 주머니를 툭툭 털어서 막걸리를 한 항아리 샀다. 그리고는 마을 입구의 삼거리에 자리잡고 앉아 손님을 기다렸다. 날씨는 더운데 손님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목도 마르고 무료해서 참다 못한 한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천원자리를 꺼내 다른 친구에게 내밀면서 “이 돈을 낼 테니 나 막걸리 딱 한 잔만 마시자”고 청했다. 밀질 것 없다고 생각한 다른 친구는 돈을 챙기고 친구가 한 잔 들이키게 내버려 두었다. 얼마 후 돈을 받은 친구도 목이 말랐다. 그래서 아까 받은 천원을 꺼내서 다른 친구에게 주면서 “그러면 나도 딱 한잔 마시자”면서 한 잔을 들이켰다. 조금 후에 돈을 받은 친구는 그 돈을 다른 친구에게 돌려 주면서 또 한 잔을 퍼 마셨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돈을 받은 친구는 똑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둘이서 천원을 주고 받으면서 술을 퍼 마시다 보니 술 한 항아리가 다 날라가 버렸고 그래서 그 둘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sup>1</sup>

농부들은 추수 뒤에도 꼭 종자씨를 남겨둡니다. 종자씨는 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아무리 배가 고프고 돈이 없다 하여도 종자씨를 먹어버리거나 팔면 이 농부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치 농부들이 아무리 배고프거나 돈을 벌고 싶어도 종자씨를 소비하지는 않듯,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도 비록 현재의 욕구 충족 수준이나 성장 정도는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미래에도 계속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 지속가능발전의 특징>

“지속가능발전”은 그 정의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통 합 : 통합은 부문간의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족분열, 계층간 대립, 양성차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경제양극화 등 사회 불평등과 정치경제적 차별로 인한 균열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선진사회로 진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 상 생 : 일부 집단의 특혜와 부정부패에서 벗어나 서로가 같이 살고, 같이 나누며,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공존과 상생의 철학을 추구합니다. 사회 구성원간의 상생 뿐 아니라 자연도 착취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와 자연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 균 형 : 농촌과 도시,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외국인과 내국인, 자연과 인간 사이에 불균등한 관계의 청산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어울려 살면서 지속가능한 균형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합니다.
- 성 찰 : 지속가능발전은 일방적 경제성장주의에 대한 일체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관료문화의 청산, 편익주의적·일방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다차원적이고 입체적 사고방식으로 기존의 평면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sup>1</sup> 이 우화는 다음 문헌에서 인용한 것임.

이정전, 「녹색경제학」, 서울: 한길사, 1994, 352-353면.